

지역 매 아리

완주군, 봄철 조림사업 박차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봄철 조림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완주군은 올해 49만여 본을 심어 미세먼지 저감, 산림재해방지, 경제적인 가치를 높인다고 5일 밝혔다.

편백, 소나무, 백합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 34만5000본(170ha) 조림을 비롯해 소나무, 상수리 등 편백나무 피해지 복구 조림에 54ha, 편백, 소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10ha, 소나무, 편백 등 산림재해방지 조림에 15ha 등 총 273ha에 49만5000본을 조림할 계획이다.

특히 백합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율나무 등 밀원수 19만1000본을 식재해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수원함양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의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을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산불피해지의 재복합,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산림자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최우식 산림복지과장은 "신속히 사업을 집행하여 내달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하고 풀베기와 숲 가꾸기를 실시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건조 특보가 발생해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봄철 산불 예방 및 발생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2019년도

농촌진흥 시험사업 선정자 사전교육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5일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2019년도 농촌진흥 시험사업 대상 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6일 개최된 농정심의회(농촌개발분과)에서 농촌진흥분야 33개 사업에 사업비 45억, 88명의 농업인 및 법인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바 있다.

이번 시험사업 선정자 교육에서는 보조사업의 추진절차 및 집행시 문제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보조사업 선정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함께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협조사항 전달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선정자들이 서로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농치기 쉬운 지급서류나 진행과정을 꼼꼼히 체크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험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모약회는 5일 김제시청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KTX 김제역 정차 시행해야”

시 모약회, 추진위원회 구성·서명운동 추진키로

김제시 모약회(회장 박준배 김제시장)는 5일 김제시청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KTX의 김제역 무정차 운행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004년 KTX가 운행된 이래로 김제역은 김제시, 부안군, 전북혁신도시 등 인근 지역 50여만명의 KTX 이용을 책임져 왔으

나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 김제역 정차가 중단되어 전북 서부는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하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부선은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일반선로 구간에 KTX가 하루 16회나 운영되는 등 지역 불균형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므로 전북 서부권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KTX 김제역 정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관용 김제시 이통장연합회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지표로 표방하는 현 정부는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등 전북 서부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KTX 김제역 정차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모약회는 향후 호남선 KTX가 김제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건강강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배움지도사와 키움보듬이 양성교육을 통해 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완주군,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완주군이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완주군 건강강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수행인력 인 배움지도사와 키움보듬이 양성교육을 통해 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사업인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 경제적 지원을 돕는다.

의사소통기술, 사업 및 대상자 이해 등 이번 양성과정을 수료한 배움

지도사와 키움보듬이는 사례관리 대상가정의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긴급일시도움, 생활도움지원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 가정에 파견돼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순)자녀를 둔 취약가족, 긴급위기가족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김인 센터장은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정에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가족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정심의회 개최

완주군, 945억 국비 예산 신청... 4개 분야 57개 사업 결정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해 총 945억원의 국비를 신청한다.

5일 완주군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국비예산 신청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정심의회)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심의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 농림축산사업 국비예산 신청건과 2019년 농정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건, 농정심의회 분과 신설 건을 검토하고 심의했다.

이를 통해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농정분과 21개사업 167억원, 산림축산분야 11개사업 157억원, 건설분야 8개사업 378억원, 농업기술분야 17개사업 243억원 등 총 57개 사업 945억원의 국비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추진

에 따른 대상자 선정건에 대해서도 1차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거쳐 심의에 부친 53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자 완주군 조직개편에 따라 먹거리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농정심의회 분과도 식품분과를 추가해 총 5개분과(농업축산분과, 식품분과, 산림분과, 건설분과, 농업기술분과)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모집

18일~20일까지

김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과 대학을 18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은 민간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등을 통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국 6개소에서 실시된다.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민간기업·대학·

지자체가 함께 사업기획, 솔루션,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방법은 김제시홈페이지(<https://www.gimge.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정보통신과 통합관계담당(063-540-2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논토양개량제 적기살포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2019년 공급분 논토양 개량제(규산) 8,760MT를 서둘러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토양개 비 생육에 필요한 규산함량은 130ppm이나 현재 대부분의 논토양에는 이보다 적은 100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양관리를 위해 3년 1기로 무상공급되는 규산질비료는 비의 조직을 강하게 하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염면적을 넓혀 탄소동화능력을 높일 뿐만아니라 질소 등 각종 양분의 이용도를 증대시켜 비료효율을 높이고 또한 병해충의 피해와 도복을 억제시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꼭 필

요한 성분인만큼 금년도에 공급된 대상지역에서는 마을별로 “토양개량제 살포하는 날”을 지정해 뿌려주시고, 마을회관이나 논두렁 주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영기 식량작물담당에 따르면 봄철에 기상조건이 좋을 때 규산질비료를 살포 한 후 일찍 논갈이 작업을 해야만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해 비의 자람을 좋게함은 물론 토양속에 분해가 덜된 볏짚 및 벼뿌리 등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건토효과가 높아진다면서 아직까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